

# 광양시, 에너지·반도체 첨단산업 일자리 650개 창출

1조2000억 대규모 투자 유치 국가산단 입지 규제 해소 성과 포스코, 한화 등 투자 탄력 기대 전남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광양시가 글로벌 투자 확산기에 1조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투자유치로 650여개 일자리 창출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입지규제 해소를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의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주), 한화오션에코텍(주)과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기홍 광양부시장, 유현호 순천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박현 본부장,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주) 정순구 대표이사, 한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기홍 광양부시장, 유현호 순천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지난 1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주), 한화오션에코텍(주)과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오션에코텍(주) 이창근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에 8040억 원을 투자해 인근 LNG 터미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7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를 통해 광양 국가산단단지 내 입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효율 최신설비로 경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단 저탄소화는 물론 신규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주)은 1420억 원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공기분리장치에서 나오는 크루드(저순도) 희귀가스를 분리·정제해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할 계

획이며 5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고순도 희귀가스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 순도 99.999%의 네온, 제논, 크립톤 가스를 말하며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이 희귀가스 국내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그룹의 이번 투자는 시가 지난 12월 광양 국가산단단지 동호안 부지에 대한 규제 해소 지원으로 신속히 투자 진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오션에코텍(주)은 울촌1산단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버커 C유와 같은 전통적인 탄소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선박인 LNG 및 LCO2 등 저/무탄소 연료 선박의 블록과 기자재를 제조하는 생산 전진기지를 구축해 530명(협력사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

업 기업 입주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한 기업들이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은 "전남도, 광양시의 지원으로 이번 투자의 성공을 확신하며, 성공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국가산단단지 동호안 규제 해소를 신산업 분야 투자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8개사 1조 3000억 원 상당 규모의 기업 유치와 72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실을 거뒀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0개 기업, 3조 원의 투자유치 실현을 목표로 전략적·공격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양-인영준 기자

## 광양시, '명품 매실' 첫 출하

생산유통 통합 조직 출범 등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4년산 광양 매실 첫 출하식과 함께 광양시 생산유통 통합조직인 광양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지역 내 지역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매실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매실 음료를 시음하는 등 광양 매실의 첫 출하를 축하했다.

광양 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제36호), 매실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하지만 지난 3월 매화꽃 개화 시기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정·착과 불량현상이 나타나는 냉해와 본격 출하를 앞둔 최근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등으로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매실 출하량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줄어든 지난해 매실 출하량(5700톤)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양 매실의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 과원 정지 전정 인력 지원, 매실 동력 전정 기구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광양 매실이 본격 출하되는 6월 중에는 농가들이 수확한 매실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흡소핑 판매지원, 온라인 매화장터 운영, 장아찌 가공용 매실 씨 분리기 보급, 소비자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광양시, 지역 수출기업 RE100 대응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내 수출기업 RE100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광양시 RE100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시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RE100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과 지역 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본격 대응 준비에 나섰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 등 유관기관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부터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반영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 행정구역별·산업단지별 광양시 RE100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추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3일 광양시보건소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가 프리마켓 행사를 열었다. 라탄 바구니 만들기, 다육이 화분 심기, 부채 만들기, 목재 문화체험 등이 이뤄졌다.

광양시 제공

##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프리마켓 운영

광양시보건소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센터 앞 주차장에서 '행복을 파는 프리마켓' 행사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을 파는 프리마켓은 지역주민 및 자원 봉사 단체들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구강보

건, 치매 예방 등 건강 부스와 광양평생교육관 사랑 나눔 봉사단, 백운산 목재 문화체험관, 아리아리 광영셀러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체험 부스(라탄 바구니 만들기, 다육이 화분 심기, 부채 만들기, 목재 문화체험 등)로 구성됐다. 포스코 문화봉사단과 새마을 교동 봉사단이 제공하는 무료 패밀리 푸드 트럭과 팝콘 등 먹거리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여 주민들에게는 혈압·혈당 측정 및

간단한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건강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안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보건소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더불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건강센터가 소생활권 중심 건강전담기관으로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공공청사 14개소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운영비 절감 시인성 확보

광양시는 공공청사 14개소에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시청사, 의회청사,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LED 건물번호판은 주간 태양열을 흡수해 야간에 점등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야간 시인성이 뛰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쉽고 야간 범죄예방 및 도

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관공서 위주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공공기관으로 연차적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관심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명주소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